

# 間質性肺疾患이란?

## ◆ 질병의 개념

간질성肺炎(간질성폐염)이라는 것은 폐장의 간질(間質)을 주로 침범하는 폐염을 말하며 폐장의 간질이란 조직학적 개념으로서 폐포(허파파리)벽으로부터 시작해서 폐胞毛細血管 내벽 까지의 간격을 의미한다. 이 간질조직이 세균성감염의 원인이나 각종 면역학적 원인, 혹은 탄광부같이 직업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먼지(粉塵)를 흡입하는 경우 등에서 염증반응을 일으켜 숨찬증상을 호흡기증세를 보이는 것이 간질성폐염이다.

따라서 이 병은 단일질환의 명명이라기보다는 흉부X선 소견과 임상증상에 바탕을 둔 서술적 병명이다. 간질성 폐염을 다시 세구분해서 그 원인별로 수십 가지의 개별질환으로 구별해서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병이 우리들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이 100여 가지 이상이 되고 그 원인을 임상적으로 초기에 가려내는 감별진단이 아주 어렵다. 그래서 그 치료에도 많은 한계점을 가진 난치질환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질환군은 과거에는 그렇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질환이었는데 이는 결핵 등 세균성원인이 많았던 과거의 질병역학소견이 근래에 와서는 생활환경의 오염과 작업환경의 다변화 장수인구증가에 따른 노년인구증가 또는 새로운 진단기술의 발달 등으로 보다 많은 환자가 우리 눈에 띠게 된데에 연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역학소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광부진폐증 등 직업성폐질환을 제외하고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지난간 수년동안 확실하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 질병의 정의

폐장은 우리 인체장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장기로서 한시도 멈출 수 없게 호흡을 통해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섭취하고 노폐물인 탄산ガ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섭취된 산소는 폐포벽과 폐포벽면을 거미줄같이 싸고 돌면

서 순환하고 있는 폐포모세혈관벽을 통하여 적혈구내 혈색소와 결합해서 신체 각 장기에 순환하게 된다. 그리고 肺臟間質이라 하면 폐포 外壁과 폐포모세혈관 内壁까지의 간격조직을 의미하며 주로 염증세포, 면역세포 등의 침윤, 섬유화변화 등의 병적소견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폐장산소운반능력을 감소시켜 숨찬증상을 나타내고 운동능력을 감소시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지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이 전과정을 폐胞炎, 침윤성 간질성폐장염, 폐섬유화증 등 병리학적 병명을 부치고 기능적으로는 폐장 고유기능인 탄력성이 없어서 굳어진 폐장이라고 해서 제한성 폐질환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간질성폐질환이라 하면 임상적으로는 숨찬 증상이나 호흡기증세를 제한성환기장애를 나타내고 병리조직검사상 폐포염, 간질성폐염, 폐섬유증 등 소견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나타내는 질환군을 총괄해서 의미하고 급성경과는 밟는 폐염은 이 분류에서 제외해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 ◆ 원인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은 전술한 바와 100여 가지 이상이 되며 세균성원인, 과민성(알레르기성) 원인, 암성, 직업성, 약물유인성 등등 많은 원인이 이 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실지로 모든 인위적인 환경오염과 신체 다른 장기의 모든 병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폐장에 간질성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종류에 따라서 임상증상이나 흉부X선 검사에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와 안나타나고 자나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경증의 경우는 우리 폐장의 천부의 자체방어기전으로 병을 이겨내고 발현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결핵성 등 세균성 원인이나 암성 혹은 과민성(알레르기성) 질환일 것이라고 원인을 아는 경우에도 그 원인규명을 하기 까지의 진단과정이 아주 어려워서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 혹은 개흉폐조직검사 등 수술과정을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어려운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으로서 조직검사를 위시하여 각종 면역검사 방법 등 진단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원인불명의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을 아는 폐질환으로 더 많이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원인불명의 난치병으로 취급되고 있다. 원인별로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감염성 원인

- ① 결핵균 감염
- ② 세균(박테리아·바이러스) 감염

### (2) 직업성 폐질환

- ① 무기 분진: 탄광부 진폐증, 규폐증
- ② 유기 분진: 과민성 폐장염

### (3) 암성폐질환

### (4) 치료 약물에 의한 폐질환: 각종 항생제, 항암제

- (5) 뇌肉腫症
- (6) 방사선 照射
- (7) 膠原病
- (8) 전신질환이나 타장기질환에 속발
- (9) 特發性

### (10) 기타 많은 다른 원인 등

그리고 10번째로 나열된 기타의 많은 원인에 속하는 원인으로 현대인의 생활환경과 습관으로 대기오염과 흡연습관을 반듯이 고려하게 된다. 흡연이 폐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사방법과 진단기술이 개발하면 할수록 그 영정난 나쁜 영향과 효과가 계속 알려지고 있으며 폐장세포에 관한 신진대사기능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지식이 아는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정도로 미지의 분야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신체를 지키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 ◆ 증상

이 병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숨찬증상이 특징이며 40대 이후에 많고 남녀간 차이는 뚜렷하게 없다. 40대 이후에 많다는 증거는 이 병이 수년에 걸친 장기간에 점차적으로 병이 진행해서, 자기도 모르게 병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초기에는 환자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년기에 들어가면 연령증가에 따른 폐장기능의 감퇴가 특히 흡연자는 흡연에 의한 호흡기증상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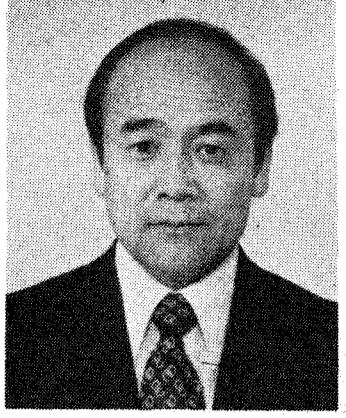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숨찬증상이 생기고 좀더 진행하면 일생생활에서도 숨찬증상을 느끼게 되고 초기에 심장검사나 흉부X선검사를 해보면 별로 큰 이상이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다만 폐기능검사상 약간정도의 이상소견을 보이게 된다. 폐기능검사종목도 어떤 검사종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상정도에 차이를 나타내므로 판독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기침증상인데 기침은 객담(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건성기침인것이 보통이다. 만일에 객담배출을 동반하는 기침증상이 있다면 이는 기관지의 이차세균감염이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임상증상은 의사진찰소견에서 찾아지는 저酸素血症에 의한 증상으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손발들이 둥뚝해지는 곤봉상수지증이 된다. 이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초기진단에는 도움이 못된다. 이 곤봉상수지증은 간질성폐질환에서 뿐만 아니라 선천성심장질환이나 심한 기관지확장증에서도 나타나므로 감별진단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 유난히 숨찬증상이 전보다 심하게 느껴지는데 심장질환이나 결핵, 폐기종, 천식 등 이름있는 병명이 진찰소견에서 않나 올때는 일단 이 병의 가능성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질병초기에 조기진단하여 병의 진행과정을 막아주는 것이 이 병 치료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 ◆ 치료

간질성폐질환의 치료는 무엇보다도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결핵 등 감염성원인인지, 직업성폐질환인지, 혹은 약제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감별진단이 치료시작전에 필요하다. 그리고는 감염성원인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항생제로 치료하고 직업성인 원인물질이 있으면 즉시 직종환경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병은 병의 원인이 많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 조직검사등의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金 建 烈

〈서울医大 内科 교수〉

면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되지 않는 난치병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 조직검사를 해도 어떤 종류의 간질성폐질환인지 확실한 진단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사람들은 폐암이라는 진단을 주는 경우 곧 수금을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서 「그러면 얼마나 더 사설 수 있습니까?」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서 간질성폐암이라고 하면 병의 개념과 예후에 대한 짐작이 없어 병의 실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병으로 되어 있다.

이 병의 치료는 주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며 그중 대표적인 약이 부신피질흔돈제통의 약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구용 「프레드니소론」과 주사용 「콜루콜테루」이고 병의 경증과 저산소혈증의 정도에 따라 경구용으로 투약하거나 주사용으로 투약한다.

질병의 경증정도는 판단하거나 활성도를 진단하는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특수검사가 필요하며 아직도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미지의 학문분야로 되어 있다. 면역억제제의 종류도 Prednisolone 뿐만 아니라 Azathioprine, Cyclosporin A 등 새로운 약이 임상에 소개되어 있고 Cyclophosphamide라는 약도 단독 혹은 병합요법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면역억제제법은 질병경과에 따라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반응을 보이다가 곧 다시 나빠지는 경과를 밟아 치료면에서는 의사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병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 ◆ 회원가입 안내

법인 법인 한국성인병예방협회  
正会員 || 入会費 1만원, 年間会費 2만원  
特別會員 || 入会費 10만원, 年間会費 12만원  
一般회원 || 入会費 1만원, 年間会費 1만2천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8-12 (서대문우체국)  
• 전화: 392-4744

協会 사무처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  
여하는 성인병을 가진자 또는 관심있는 일반국민.  
◆ 入会節次

1. 正会員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성인병관계학자 및 전문가 또는 협회발전에 공이 있는者  
2. 特別會員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자진참여하는 사업체(自營者포함)의 長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一般회원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자진참여하는 성인병을 가진자 또는 관심있는 일반국민.  
◆ 事業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成人病(임·당뇨병·고혈압·심장병·뇌혈관질환·간경변증·만성간장염·비만증등)은 사회각계에서 중으로 활약중인 40~50대에서 주로 발생하여 개인적 및 가족인 차원의 인력자원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바야흐로 사회에 이에 따라 본회는 成人病의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지도계몽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구현에 바지하고자 하는 바,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